

논문접수일 : 2013.12.20 심사일 : 2014.01.05 게재확정일 : 2014.01.26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전문가 의식 유형화

The Types of Experts' Consciousness for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odern
Architecture

주저자 : 박종혜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박사수료

Park jong-hye

Dept. of Interior Design, Hanyang university

교신저자 : 신경주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교수(Ph.D)

Shin kyung-joo

Dept. of Interior Design, Hanyang university

1. 서론

- 1.1. 연구배경과 목적
- 1.2. 연구흐름

2. 이론적 고찰

- 2.1. 근대건축물의 개념
- 2.2.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의 의미

3. 연구방법 및 설계

- 3.1. Q 방법론
- 3.2. 연구 설계
 - 3.2.1. 문항수집과 문항선정
 - 3.2.2. 응답자 선정
 - 3.2.3. 중요도 분류
 - 3.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4. 전문가 의식 유형분석

- 4.1. 결과분석
- 4.2. 유형분석
 - 4.2.1. 제1유형: 역사교육 추구형
 - 4.2.2. 제2유형: 공간개조 추구형
 - 4.2.3. 제3유형: 지역연계 추구형

5.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등록문화재제도를 도입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들에 대하여 외관을 보존하고 내부는 기능을 변경하거나 수리·수선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존건물에 대한 활용을 중요시 하여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등록문화재에 등록된 건축물들의 상당수가 미사용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회변화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는 근대건축물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연구로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의 의미를 고찰하고, Q 방법론을 통하여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전문가 의식을 유형화하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식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명명하였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교육 추구형은 근대건축물이 변형되거나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며,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게 역사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유형이었다.

둘째, 공간개조 추구형은 근대건축물의 외부를 보존하면서 내부는 시대 변화에 적합한 기능을 갖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공간을 향유하기를 바라는 유형이었다.

셋째, 지역연계 추구형은 건축물 자체의 활용에서 나아가 그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바라는 유형이었다.

주제어

근대건축물, 의식 유형화, Q 방법론

Abstract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registered cultural asset system in 2001, Korea is highly regarding and encouraging the utilization of the buildings that are worthy of conservation by preserving their exterior while allowing the changes in function or repair of their interior. However, many of the buildings that are currently registered as the cultural assets in Korea are left unused.

This study is the study for the active utilization of modern architecture that lost its function with the changes in society and investigated the utilization plan of modern architecture, an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tereotype experts' consciousness for the utilization of modern

architecture through the classification of the experts' importance.

This study derived the experts' consciousness for the utilization plan of modern architecture into the following three types by using Q methodology, and their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First, the history education-oriented type was most concerned about the deformation or damage of modern architecture and is the type that seeks the utilization as the cultural space with the history education program that can best conserve the original form.

Second, the space remodeling-oriented type was the type that wants more people to enjoy the space in each individual's way by utilizing the interior as the space with the functions according to the periodical changes while conserving the exterior of main architecture.

Third, the regional connection-oriented type is the type that wants to serve for the purpose of the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the programs connected with the region as well as the utilization of modern architecture itself.

Keyword

Modern Architecture, Consciousness types, Q Methodology

1. 서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오늘날의 근대건축물은 대부분이 산업화 시대의 산물로 현재는 그 건물의 기능적인 필요성이 약화되어 보존과 철거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근대건축물은 역사적, 건축적, 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대적인 활용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공존 시키면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의 지정문화재에 속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대상으로 폭넓게 등록시키고, 보존의 기준을 완화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2001년부터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등록문화재의 목적은 지정문화재 제도와는 다르게 해당 문화재의 외관은 보호하면서 내부는 문화재별 용도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변경하거나 수리와 수선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문화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등록된 건축물의 상당수가 미사용으로 방치되어 있어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

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운영이 원활하지 않거나 미사용으로 방치되고 있는 근대건축물과 잠재적인 근대건축물을 보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Q 방법론을 통해서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식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2. 연구흐름

본 연구에서는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전문가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근대건축물의 개념과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의 의미를 고찰한다.

연구문제2>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획, 운영, 관리에 대한 의식을 유형화한다.

연구문제3> 전문가 의식 유형별로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 관하여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분석한다.

2. 이론적 고찰

2.1. 근대건축물의 개념

‘근대’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얼마 지나가지 않은 가까운 시대’라고 정의되어 있다. 박태우(2011)는 ‘근대’의 시대적 범위를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그 기점으로 삼는 학자가 있는 반면, 산업혁명을 근대의 시발점으로 규정하는 학자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근대건축의 광의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된 18세기 중반을 그 기점으로 잡으며, 20세기 전반부에 근대건축이 완성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박용철(2002)이 제시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대건축 시대구분에 대하여 윤일주(1966)은 1900년 이전부터 해방이후인 1960년대까지로 보았으며, 김영태(1976)은 개화기 이후부터 5.16 혁명이전까지로 보았다. 이경성(1981)은 개화기부터 1960년대까지로 보았으며, 김정동(1982)은 1876년부터 1960년대까지로 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서구의 근대시기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18세기 중반부터로 보고, 우리나라의 근대시기는 개항시점인 1876년으로 보기 때문

에 근대범위의 시작이 100년 정도의 차이가 났다. 따라서 서구와 우리나라 근대시기의 범위는 구분될 필요가 있었는데, 국내 학자들은 우리나라 근대건축의 시기를 대부분 개항시점인 1876년 이후부터 1960년대로 보고 있었다.

위와 같은 근대시기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서구 근대건축의 시기를 산업혁명이 일어난 18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로, 우리나라 근대건축의 시기는 개항시점인 1876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로 한정하였다. 또한 근대건축물은 근대에 건립된 건축물 중 보존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존과 활용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내 용	
근대건축의 시기	*서구 : 산업혁명이 일어난 18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우리나라 : 개항기인 1876년부터 1960년대까지
근대건축물	근대에 건립된 건축물 중 보존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존과 활용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표 1] 근대건축의 시기와 근대건축물의 범위설정

2.2.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의 의미

본 연구에서는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대건축물이란 근대에 건립된 건축물 중 보존과 활용 가치를 갖는 건축물로 정의하였다. 이에 근대건축물은 다른 산업유물들과 달리 활용을 통해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정은(2008)은 보전(保全)과 보존(保存)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수리나 수선 등의 개입의 정도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 원형유지를 목표로 하는 의미를 보전(保全)으로, 보존(保存)은 광의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보존이란 건축이 기능을 가지고 활용되고 있는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며, 궁극적인 보존은 건물이 ‘활용’되어야 완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존의 방법과 범위 등에서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의미를 갖는 보존이라는 단어를 사용 하였으며, 건축물의 보존이란 기능을 가지고 활용되어야 함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기차역에서 미술관으로 변신한 프랑스의 오르세 박물관, 산업공장에서 예술가들을 위한 작업실과 갤러리 등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된 중국의 따산즈 798 예술구, 버려진 창고에서 복합문화공간과 쇼핑몰로 탈바꿈한 요코하마의 아카렌가 소코 등은 기능을 잃은 근대건축물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보존과 동시에 현대적으로 활용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된 성공적인 사례들이다. 따라서 건축물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건물을 재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의미, 환경적인 의미를 가지며, 더 나아가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재창조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은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

건축물 개요 (국가) 건립연도	활용 특징	이미지
오르세 미술관 (프랑스) 1900년	1900년 개최된 ‘파리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오르세역이 지어졌으나 1939년 이후 방치. 1979년에 내부개조를 통해 1986년 12월에 미술관으로 개관됨.	
따산즈 798 예술구 (중국) 1957년	1950년대 독일의 건축기술로 지어진 산업공장으로 1990년대부터 공장이 쇠퇴하기 시작하였음. 2000년 이후 임대를 통해 예술가의 작업실, 갤러리로 재사용되기 시작함. 2005년에 ‘문화창의산업특구’로 공식 지정되었음.	
요코하마 아카렌가 소코 (일본) 1911/1913년	1900년대 초기 항구의 창고로 지어졌음. 1989년도부터 기능을 상실하고 방치 됨. 내부개조를 통해 2002년 아카렌가 소코를 오픈하여 사랑받고 있음.	

[표 2] 기능을 상실했던 근대건축물이 활용을 통해 보존되고 있는 사례들

3. 연구방법 및 설계

3.1. Q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 관련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의식을 파악하고 유형화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된 Q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Q 방법론은 종래의 양적분석과는 달리 한 개인의 의식을 중시하여 다루므로 다수의 의견으로 일반화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여 소수의 의견이 가진 의미성을 파악하는 연구방법론으로 현재 마케팅, 광고, 커뮤니케이션, 의료, 관광 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김홍규(2008)에 따르면 Q 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 연구를 위한 방법론으로, 1935년 윌리엄 스티븐스(William Stephenson)에 의해 창안되었다. 이 연구 방법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어떤 속성들 사이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춘 행태주의 연구방법과는 반대로 주관적인 속성들로 사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전자인 종래의 정량적 통계방식을 R방법론이라 하고, 후자를 Q 방법론이라 하였을 때, R 방법론은 관찰할 수 있으며, 계량·측정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Q 방법론은 느낌, 의견, 선호, 감정, 이상이나 취향 등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R 방법론은 특정 문항에 대한 개인 간의 차이에 의미를 두어 가능한 한 많은 표본을 확보하여 이를 일반화하는 방법이라면, 이와 달리 Q 방법론은 한 개인이 제시된 문항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의 차이에 더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이용하여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 방법에 관한 문항들에 대하여 응답자 스스로 중요도 순으로 9점 척도로 점수를 부여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나타나는 유형을 알아보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의식 유형 분석을 위한 연구단계는 총 5단계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 단계	연구내용
문항 수집과 문항 선정 (Q 모집단 수집과 Q 표본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와 전문가, 일반인, 학생들과 면담을 통해 Q 모집단 구성 • 총 77개의 문항 수집 • 3차에 걸친 문항 검토와 사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 최종 30개의 문항을 선정
응답자 선정 (P 표본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예연구사, 문화재과 소속 공무원, 문화콘텐츠 기획자, 공간디자이너, 건축가를 대상으로 10명의 응답자 선정
중요도순 배치 (Q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 분류 요청, 1대1 심층면담 실시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점 척도로 점수 부여 • QUANL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인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실시, 분석
유형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도출

[표 3] 전문가 의식분석 연구단계와 단계별 내용

3.2. 연구 설계

3.2.1. 문항 수집과 문항 선정

응답자에 의해 분류되는 특정항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먼저 주제와 관련한 문항을 수집하여야 한다. Q 방법론에서는 이를 Q 모집단이라고 한다.

NO.	Q 표본
Q1	역사적 건축물은 원형 보존(복원)을 해야 한다.
Q2	외부의 틀은 보존하고 내부는 기능에 맞게 개조하는 것이 좋다.
Q3	역사적 건축물은 회상적인 보존 의미가 있다.
Q4	역사적 건축물의 무분별한 기능변화보다 원래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
Q5	문화 외에도 상업, 업무, 공공서 등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Q6	시대변화에 따라 공간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
Q7	기존의 기능을 현대적으로 되살리는 방식의 보존·활용도 의미가 있다.
Q8	역사적 건축물은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9	역사적 건축물의 활용 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Q10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하는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Q11	지역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관광휴게공간으로 활용이 필요하다.
Q12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옥외공간 활용도 중요한 요소이다.
Q13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여 테마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Q14	역사적 건축물은 지역의 경제가치 창출의 역할도 중요하다.
Q15	랜드마크 건축물 자체가 지역의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다.
Q16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활용은 지역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Q17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Q18	역사적 건축물은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Q19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축제, 행사가 필요하다.
Q20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안내 팸플릿과 관련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Q21	현장에서만 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Q22	연령별, 관심별, 장르별 등 세심한 구분을 통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Q23	역사적 건축물의 활용·운영 시 지역주민의 참여가 고려되어야 한다.
Q24	지역과 연계성을 갖는 프로그램(ex. 연계투어)이 필요하다.
Q25	활용 후에도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은 전문 서적을 발간하여 기록을 남기고 알리는 것이 좋다.
Q26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통합적인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
Q27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기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Q28	기존 건물을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방면, 다각도에서의 장기적인 계획(3년 이상)이 필요하다.
Q29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매뉴얼이 필요하다.
Q30	오래 머물 수 있는 익숙한 공간이 좋다.

[표 4] 최종 선정된 30문항 (77개 문항으로부터 도출)

문항 수집은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방안, 전략 등에 관한 문헌조사와 전문가, 일반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통하여 중복된 의견을 제외하고 총 77개의 문항을 수집하였다. 전문가들과 3차에 걸친 진술문 검토를 통하여 가장 대표성을 갖는 진술문을 예비선정 하였다. 예비선정한 Q 표본은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 검토 및 진술문 수정보완을 통해 총 30개의 진술문을 최종 Q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3.2.2. 응답자 선정

최종 선정된 문항을 중요도 순서대로 분류하여 각 문항에 점수를 부여할 과정에 참여하는 응답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Q 방법론에서는 이를 P 표본이라고 한다. Q 방법론은 소표본 원리를 따르고 있다. 최현철(2007)은 일반 통계에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목적이지만, Q 방법론은 현상에 대한 이해가 목적이기 때문에 P 표본의 수나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이 따로 없으며 P표본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강진숙, 이계영(2010)은 Q 연구의 목적은 표본의 특성에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P 표본의 선정도 확률적 표집방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서 전문가들의 의식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공간프로그램이나 운영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관리에 참여하였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1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류 번호	성별	연령	직업	경력기간
M1	남자	31	공간디자이너	5
M2	남자	39	문화재과 공무원	8
M3	남자	44	건축가	17
M4	남자	49	문화콘텐츠 기획자	23
F1	여자	31	공간디자이너	5
F2	여자	38	공간디자이너	5
F3	여자	39	학예연구사	12
F4	여자	41	학예연구사	5
F5	여자	43	문화재과 공무원	16
F6	여자	44	문화재과 공무원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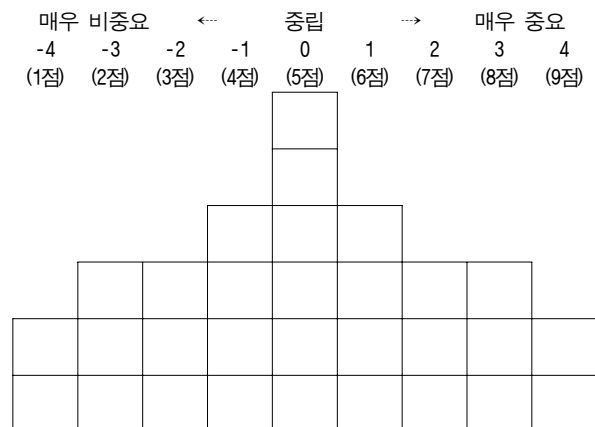
[표 5]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선정된 응답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경

력은 5년 이상이며, 연령은 30대~40대 이었다¹⁾. 이들은 현재 현장에서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하고 있으며, 현황과악에 대하여 가장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므로 이들의 의식을 파악하여 유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3.2.3. 중요도 분류

중요도의 분류는 조사대상인 응답자가 최종 선정된 30문항을 읽고, 그 중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에 따라서 9단계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Q 방법론에서는 이를 Q 분류 또는 Q 소팅(Q-sorting)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선정된 문항이 쓰인 30장의 문항카드를 사용하여 강제분포 방식으로 응답자가 카드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카드의 배치 방식은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항부터 -4에 2장, -3에 3장, -2에 3장, -1에 4장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항부터 +4에 2장, +3에 3장, +2에 3장, +1에 4장을 놓게 각각 필요한 장수만큼 아래에 칸을 설정 하였으며, 중립 문항 0에는 6장을 놓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1] 중요도별 문항분류 배치도 (N=30, 9점 척도)

3.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식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자로 선정한 10명의 전문가와 일대일 면담 조사를 한 후에 수집된 자료를 점수화하였다.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항(-4)을 1점으로 시작하여, 2점(-3), 3점(-2), 4점(-1), 5

1) 본 연구를 위한 1대1 심층면담이 가능하였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연령대는 30~40대이므로 조사대상자가 30~40대로 표집 되었으며, 이들의 의식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문가들과의 검토를 통하여 데이터 분석에 무리가 없는 최소 샘플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점(0), 6점(1), 7점(2), 8점(3),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항(4)을 9점으로 하여 9점 척도로 점수화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PC용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Q 요인 분석은 주요인 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방법을 이용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수의 결정을 위하여 아이겐 값 1.0이상을 기준으로 요인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서 여기에서 산출된 결과 중에 최선이라고 판단된 유형을 선택 하였다.

4. 전문가 의식의 유형화

4.1. 결과 분석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전문가 의식은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우수명(2010)은 일반적으로 상관관계 계수가 절대값 1에 가까워질수록 상관관계가 높으며,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0.6 이상인 경우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며, 0.4이상 0.6미만인 경우는 상관관계가 다소 높다고 보고, 0.2이상 0.4미만인 경우는 상관관계가 있으나 낮다고 보며, 0.2 미만의 경우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각 유형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제1유형과 제2유형이 0.260, 제1유형과 제3유형이 0.245, 제2유형과 제3유형이 0.028이었다. 따라서 각 유형들 간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편이며 비교적 독립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1유형	1.000	-	-
제2유형	0.260	1.000	-
제3유형	0.245	0.028	1.000

[표 6] 분류 된 3가지 유형간의 상관관계 계수

응답자 10명 가운데 제1유형에 속한 사람이 4명, 제2유형이 4명, 제3유형이 2명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 내에서 인자가중치(factor weights)가 1.00 이상인 사람은 그 유형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유형별 인자가중치와 변량을 분석한 결과, 제1유형이 26.36%, 제2유형이 15.14%, 제3유형이 10.91%으로 전체 변량의 52.41%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각 분석결과의 내용을 참조하여 역사교육 추구형, 공간개조 추구형, 지역연계 추구형으로 명명 하였다.

유형	분류 번호	인자 가중치	아이겐 값	변량	누적 변량
제1유형 (N=4) 역사교육 추구형	F4	3.3820	2.6356	0.2636	0.2636
	F5	0.8655			
	M4	0.4994			
	M2	0.4474			
제2유형 (N=4) 공간개조 추구형	M3	1.5804	1.5143	0.1514	0.4150
	M1	0.5460			
	F1	0.4838			
	F2	0.3633			
제3유형 (N=2) 지역연계 추구형	F3	1.7878	1.0908	0.1091	0.5241
	F6	0.3197			

[표 7] 도출된 3가지 유형별 요인가중치와 명명

4.2. 유형분석

4.2.1. 제1유형: 역사교육 추구형

제1유형은 '근대건축물의 교육적 활용'에 우선순위를 둔 전문가들이었다. 이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교육의 장으로서의 활용 중시'로 건축물의 형태와 기능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훼손된 경우도 원형대로 복원하여 유지시켜야 하며, 그 공간을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이었다.

문항 (문항번호)	표준점수 (Z-score)
Above (긍정)	
근대건축물은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Q18)	2.00
근대건축물은 원형보존(복원)을 해야 한다.(Q1)	1.74
근대건축물은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Q8)	1.30
근대건축물의 보존·활용은 지역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Q16)	1.26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여 테마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Q13)	1.21
근대건축물의 활용 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Q9)	1.17
Below (부정)	
근대건축물의 활용·운영 시 지역주민의 참여가 고려되어야 한다.(Q23)	-1.07
시대변화에 따라 공간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Q6)	-1.11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하는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Q10)	-1.32
근대건축물은 회상적 보존이 의미가 있다.(Q3)	-1.47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기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Q27)	-1.77
문화 외에도 상업, 업무, 관공서 등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Q5)	-1.81

[표 8] 제1유형의 표준점수가 ±1.00이상인 문항²⁾

2) 각 유형에서 표준점수 ±1.00이상의 문항은 해당 유형에 대한 높은 설명력을 지닌 문항이다. 1.00이상의 문항은 긍정적인

제1유형이 다른 두 유형보다 높게 긍정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교육프로그램(문항: Q1, 점수차: 2.079), 문화공간으로 활용(Q9, 1.945), 공개활용(Q8, 1.836) 등에서 다른 유형 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반면에 지역주민의 운영참여(Q23, -1.525), 회상적인 보존(Q3, -1.475), 공간의 기능변화(Q6, -1.467)와 같이 원형이 변형되거나 훼손될 소지가 있는 문항에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점수 차이 diff. = ±1.00이상)

문항 (문항번호)	표준점수 (Z-score)	평균표준점수 (Average)	점수 차이 (diff.)
Above (긍정)			
근대건축물은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Q18)	2.000	-0.079	2.079
근대건축물의 활용 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Q9)	1.170	-0.775	1.945
근대건축물은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Q8)	1.303	-0.533	1.836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여 테마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Q13)	1.208	-0.135	1.343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축제, 행사가 필요하다.(Q19)	0.065	-1.211	1.277
Below(부정)			
문화 외에도 상업, 업무, 관공서 등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Q5)	-1.813	-0.442	-1.371
기존의 기능을 현대적으로 되살리는 방식의 보존·활용도 의미가 있다.(Q7)	-0.771	0.603	-1.374
시대변화에 따라 공간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Q6)	-1.107	0.360	-1.467
근대건축물은 회상적 보존이 의미가 있다.(Q3)	-1.470	0.004	-1.475
근대건축물의 활용·운영 시 지역주민의 참여가 고려되어야 한다.(Q23)	-1.067	0.458	-1.525

[표 9] 제1유형자가 다른 유형보다 특히 긍정·부정한 문항

제1유형에 속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근대건축물이 변형되거나 훼손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있으며,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역사 교육프로

로 동의한 문항이며, -1.00이상의 문항은 부정적으로 동의한 문항이다.

그램이 있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이를 역사교육 추구형이라 명명하였다.

4.2.2. 제2유형: 공간개조 추구형

제2유형은 '내부를 개조한 공간의 활용'에 우선순위를 둔 전문가들이었다. 이 유형의 특징은 외부는 원형을 보존하나 내부는 현대적인 기능에 맞게 개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문항 (문항번호)	표준점수 (Z-score)
Above (긍정)	
근대건축물의 보존·활용은 지역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Q16)	1.77
외부의 틀은 보존하고 내부는 기능에 맞게 개조하는 것이 좋다.(Q2)	1.65
기존의 기능을 현대적으로 되살리는 방식의 보존·활용도 의미가 있다.(Q7)	1.48
시대변화에 따라 공간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Q6)	1.33
Below (부정)	
현장에서만 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Q21)	-1.10
연령별, 관심별, 장르별 등 세심한 구분을 통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Q22)	-1.27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기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Q27)	-1.35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축제, 행사가 필요하다.(Q19)	-1.58
지역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관광휴게공간으로 활용이 필요하다.(Q11)	-2.18

[표 10] 제2유형의 표준점수가 ±1.00이상인 문항

제2유형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동의한 문항은, 지역문화의 형성(Q16, 1.77)이었으며, 내부개조(Q2, 1.65), 현대적인 부활과 활용(Q7, 1.48) 순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공간의 형태는 보존하나 기능을 변경하거나 현대화시키는 것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관광휴게공간의 활용(Q11, -2.18), 이벤트 프로그램(Q19, -1.58), 민간단체 운영(Q27, -1.35)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는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 유형은 운영프로그램보다는 공간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현재 활용 가능한 기능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었다.

제2유형이 다른 두 유형보다 높게 긍정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내부개조(Q2, 2.757), 기능의 변화(Q6, 2.193), 현대적인 부활 활용(Q7, 1.996)에 대하여 다른 유형에 비해 크게 긍정적으로 동의하였으며, 반면, 기능유지(Q4, -2.007), 관광휴게공간 활용(Q11, -1.702), 원형보존(Q1, -1.637)과 같이 기존의 기능이나 내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에 비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점수 차이 diff. = ±1.00이상)

문항 (문항번호)	표준점수 (Z-score)	평균표준점수 (Average)	점수 차이 (diff.)
Above (긍정)			
외부의 틀은 보존하고 내부는 기능에 맞게 개조하는 것이 좋다.(Q2)	1.645	-1.112	2.757
시대변화에 따라 공간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Q6)	1.332	-0.860	2.193
기존의 기능을 현대적으로 되살리는 방식의 보존·활용도 의미가 있다.(Q7)	1.475	-0.520	1.996
Below (부정)			
지역과 연계성을 갖는 프로그램(ex.연계투어)이 필요하다.(Q24)	-0.072	0.996	-1.068
근대건축물의 활용 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Q9)	-0.906	0.263	-1.169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축제, 행사가 필요하다.(Q19)	-1.585	-0.386	-1.199
현장에서만 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Q21)	-1.101	0.217	-1.318
연령별, 관심별, 장르별 등 세심한 구분을 통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Q22)	-1.271	0.255	-1.526
근대건축물은 원형보존(복원)을 해야 한다.(Q1)	0.219	1.856	-1.637
지역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관광휴게공간으로 활용이 필요하다.(Q11)	-2.178	-0.476	-1.702
근대건축물의 무분별한 기능변화보다 원래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Q4)	-0.980	1.027	-2.007

[표 11] 제2유형자가 다른 유형보다 특히 긍정·부정한 문항

제2유형의 경우는 근대건축물의 외부는 보존하면서 내부는 현대적인 기능을 갖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각자의 방식으로 향유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이를 공간개조 추구형이라 명명하였다.

4.2.3. 제3유형: 지역 연계 추구형

제3유형은 '지역연계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둔 전문가들이었다. 이 유형의 특징은 제1유형과 비슷하게 원형보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근대건축물이 그 지역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문항 (문항번호)	표준점수 (Z-score)
Above (긍정)	
근대건축물은 원형보존(복원)을 해야 한다.(Q1)	1.98
근대건축물의 보존·활용은 지역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Q16)	1.41
근대건축물의 무분별한 기능변화보다 원래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Q4)	1.38
랜드마크 건축물 자체가 지역의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다.(Q15)	1.26
지역과 연계성을 갖는 프로그램(ex. 연계투어)이 필요하다.(Q24)	1.26
Below (부정)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Q17)	-1.26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하는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Q10)	-1.41
외부의 틀은 보존하고 내부는 기능에 맞게 개조하는 것이 좋다.(Q2)	-1.56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기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Q27)	-1.83
근대건축물은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Q8)	-1.90

[표 12] 제3유형의 표준점수가 ±1.00이상인 문항

제3유형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동의한 문항은 원형보존(Q1, 1.98)이었으며, 지역문화의 형성(Q16, 1.41), 기능의 유지(Q4, 1.38)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원형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를 형성하고, 상징적인 공간이 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에, 공개 활용(Q8, -1.90), 민간단체의 운영(Q27, -1.83), 내부의 개조(Q2, -1.56) 등과 같이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에서의 일반인 공개나 민간단체의 운영처럼 원형의 변형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점수 차이 diff. = ±1.00이상)

문항 (문항번호)	표준점수 (Z-score)	평균표준점수 (Average)	점수 차이 (diff.)
Above (긍정)			
연령별, 관심별, 장르별 등 세심한 구분을 통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Q22)	0.838	-0.800	1.638
근대건축물의 활용·운영 시 지역주민의 참여가 고려되어야 한다.(Q23)	0.988	-0.569	1.557
근대건축물의 무분별한 기능변화보다 원래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Q4)	1.376	-0.151	1.527
문화 외에도 상업, 업무, 관공서 등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Q5)	0.075	-1.385	1.460
지역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관광휴게공간으로의 활용이 필요하다.(Q11)	-0.075	-1.527	1.452
현장에서만 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Q21)	0.688	-0.678	1.366
근대건축물은 회상적인 보존이 의미가 있다.(Q3)	0.300	-0.881	1.180
랜드마크 건축물 자체가 지역의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다.(Q15)	1.257	0.188	1.069
Below(부정)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Q17)	-1.257	-0.207	-1.050
근대건축물은 역사교육의 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Q18)	-0.194	1.018	-1.213
근대건축물은 지역의 경제 가치 창출의 역할도 중요하다.(Q14)	-0.494	0.730	-1.223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여 테마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Q13)	-0.913	0.925	-1.838
외부의 틀은 보존하고 내부는 기능에 맞게 개조하는 것이 좋다.(Q2)	-1.557	0.489	-2.046
근대건축물은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Q8)	-1.901	1.069	-2.970

[표 13] 제3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특히 긍정·부정하는 문항

제3유형이 다른 두 유형보다 높게 긍정적인 문항은 차별화된 프로그램(Q22, 1.638)이었으며, 지역주민의 운영참여(Q23, 1.557), 기능의 유지(Q4, 1.527) 이었다. 반면 일반인 공개 활용(Q8, -2.970), 내부의 개조(Q2, -2.046), 테마공간(Q13, -1.838)과 같이 건축물의 변형이나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이 높았다. 따라서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지역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유형의 경우는 원형보존을 유지하면서 건축물의 자체활용 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활성화의 역할을 바라고 있었으므로 이를 지역연계 추구형이라 명명하였다.

4.2.4. 모든 유형에서 일치된 의견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문항은 근대건축물의 지역문화 형성(Q16, 1.48)이었으며, 아카이브의 구축(Q26, 0.60), 전문서적의 발간(Q25, 0.55)과 같은 정보 프로그램과 장기적인 계획(Q28, 0.33), 운영 매뉴얼(Q29, 0.26)과 같은 기획운영 관리 프로그램에 모든 유형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이 지역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는 것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문항 (문항번호)	표준점수 (Z-score)
Above (긍정)	
근대건축물의 보존·활용은 지역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Q16)	1.48
근대건축물에 대한 통합적인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Q26)	0.60
활용 후에도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은 전문서적을 발간하여 기록을 남기고 알리는 것이 좋다.(Q25)	0.55
기존 건물을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방면, 다각도에서의 장기적인 계획(3년 이상)이 필요하다.(Q28)	0.33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매뉴얼이 필요하다.(Q29)	0.26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옥외공간 활용도 중요한 요소이다.(Q12)	0.20
근대건축물에 대한 안내 팸플렛과 관련 상품개발이 필요하다.(Q20)	0.07
Below (부정)	
오래 머물 수 있는 익숙한 공간이 좋다.(Q30)	-0.28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하는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Q10)	-1.14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기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Q27)	-1.65

[표 14] 모든 유형에서 함께 긍정·부정하는 문항들

반면에, 민간단체에서 운영(Q27, -1.65), 복합공간의 활용(Q10, -1.14), 익숙한 공간(Q30, -0.28)에 대하여는 모든 유형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는데, 이는 과도한 상업적 이익의 추구나, 원형의 훼손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전문가들의 인식 유형과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Q 방법론을 통한 주관성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째,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문헌조사와 전문가, 일반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통해 77개의 문항을 수집하였으며, 문항 검토와 수정보완을 통해 총 30개의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둘째,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획,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0명의 응답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들과 1대1 심층면담을 통해 중요도 분류를 실시하였다.

셋째, 자료 처리 및 분석은 PC용 QUAN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주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총 3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각 유형에 대한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긍정·부정한 문항 상위 3순위에 해당하는 문항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원형보존(Q1) 문항은 제1유형과 제3유형에서 긍정적인 동의를 나타냈으며, 지역문화 형성(Q16) 문항은 제2유형과 제3유형에서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반면, 민간단체 운영(Q27) 문항은 모든 유형에서 부정적인 동의를 나타냈다. 또한 내부개조(Q2) 문항의 경우는 제2유형은 긍정적인 동의를 하였으나, 제3유형에서는 부정적인 동의를 나타냈다. 일반인 공개 활용(Q8) 문항의 경우는 제1유형에서는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으나 제3유형에서는 부정적인 동의를 하여 각 유형간의 차이가 인정된 문항이었다.

넷째, 유형 분석결과 총 3가지의 유형을 도출하였으며, 각 유형별 특성은 아래와 같았다.

제1유형은 역사교육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는데, 이 유형은 근대건축물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를 바라는 유형이었다.

제2유형은 공간개조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는데, 이 유형은 근대건축물의 외부는 보존하면서 내부공간은 기능에 따라 개조하여 활용하기를 바라는 유형이었다.

제3유형은 지역연계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는데, 이 유형은 근대건축물을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갖춘 공간으로 활용하게 하여 지역 활성화 역할의 담당을 기대하는 유형이었다.

※ 유형별 긍정·부정 문항 중 표준점수 상위 3순위까지 다음과 같이 표시함.

●: 긍정적 동의 1순위, ◎: 긍정적 동의 2순위, ○: 긍정적 동의 3순위
 ■: 부정적 동의 1순위, ▣: 부정적 동의 2순위, □: 부정적 동의 3순위

문항	유형별 순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근대건축물은 원형보존(복원)을 해야 한다.(Q1)	◎		●
외부의 틀은 보존하고 내부는 기능에 맞게 개조하는 것이 좋다.(Q2)		◎	□
근대건축물은 회상적 보존이 의미가 있다.(Q3)	□		
근대건축물의 무분별한 기능변화보다 원래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Q4)			○
문화 외에도 상업, 업무, 관광 등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Q5)	■		
기존의 기능을 현대적으로 되살리는 방식의 보존·활용도 의미가 있다.(Q7)		○	
근대건축물은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Q8)	○		■
지역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관광휴게공간으로 활용이 필요하다.(Q11)		■	
근대건축물의 보존·활용은 지역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Q16)		●	◎
근대건축물은 역사교육의 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Q18)	●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축제, 행사가 필요하다.(Q19)		▣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기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Q27)	▣	□	▣

[표 15] 각 유형별 긍정·부정하는 문항들

유형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서 중요한 점 특성
역사교육 추구형 (제1유형)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 문화공간으로 활용 일반인에게 공개 테마공간을 형성 축제, 행사 필요 ⇒ 근대건축물이 변형되거나 훼손되는 것에 대 해서 우려를 하고 있으며, 원형을 가장 잘 보존 할 수 있는 역사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문화 공 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유형
공간개조 추구형 (제2유형)	내부는 기능에 맞게 개조 시대 변화에 따른 공간 기능의 변화 필요 현대적 부활 활용 ⇒ 근대건축물의 외부는 보존하면서 내부는 현 대적 기능을 갖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각자의 방식으로 향유하기를 바라는 유형
지역연계 추구형 (제3유형)	특화프로그램 개발 필요 지역주민 참여 고려 원래 기능 유지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 관광휴게공간으로 활용 회상적 보존 지역의 상징적 역할로서의 랜드마크 ⇒ 건축물 자체 활용 뿐 아니라 그 지역과 연계 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활성화 공간역할을 기 대하는 유형

[표 16] 도출된 3가지 유형과 그 유형별 특성

본 연구는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Q 방법론을 통하여 전문가
들이 추구하는 의식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제시하
였다. 이러한 시도는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 방안
탐색을 위한 후속연구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음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강진숙, 이제영(2010). 미디어교육 참여 경험에 대
한 Q방법론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4(3), 7-49.
- 김동식(2002).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홍규 (2008). 『Q 방법론』. 서울 : 커뮤니케이션
북스.
- 노정은 (2008). 「건축공간의 재생활용을 위한 컨버
전디자인의 전략과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 박근수 (2003). 「한국근대건축물의 보전관리지침
구성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용철 (2002). 「근대건축물 보존 규정에 관한 연
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태우 (2011). 「근대건축물의 공간재활용에서 시
간성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 우수명 (2010). 『마우스로 잡는 PASW 18.0』. 서울
: 인간과복지.
- 최현철 (2007). 『사회통계방법론』. 파주 : 나남.